



2014년 진짜 시작을 열다

2월13일 정기총회 개최
20년기념사업 등 의결



지난 2월 13일, 겨울의 끝자락 알싸한 바람을 뚫고 봄 같은 얼굴로 24명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남천동에 자리잡은 민언련의 보금자리 공간 '봄'의 강당에서 정기총회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13년의 부산민언련을 정리하고 2014년 한 해의 일들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민언련 살림을 잘 살았는지 결산과 감사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민언련 활동의 밑받침이 될 재정을 튼튼하게 할까 고민이 스친 것이었을까요? 민언련의 재정 상황을 지적한 따끔한 감사보고에 회원들의 얼굴이 진지해 집니다. 이어서 임원개선의 순서입니다. 윤영태 현 대표님의 연임이 결정되고 정수진 운영위원이 부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표의 역할을 맡아 수고한 윤영태 대표가 연임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으리라는 마음을 헤아려서인지 회원들의 박수가 유난히 우렁칩니다. 정수진 운영위원은 대표를 잘 보필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민언련을 만들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정숙희 부대표는 재정감사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살폈습니다. 2014년은 부산민언련이 출발한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만큼 20주년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언론감시와 지역연대, 미디어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힘찬 박수 소리가 2014년의 민언련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민언련 정기총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는 회원 으뜸상을 주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소식지 디자인을 맡아 준 김정근 회원과 그림을 그리는 류창섭 회원, 그리고 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오혁진 회원이 회원 으뜸상으로 뽑혔습니다. 깜짝 발표 덕분에 상을 받은 회원들의 기쁨도 배가 됐죠. 재치넘치는 상패와 선물을 받고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에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한바탕 웃음속에 윤영태 대표의 인사 말씀으로 총회가 마무리되고 자리는 조촐한 뒤풀이로 이어졌습니다. 뒤풀이에서는 보글 보글 만두전골을 앞에 두고 2014년 스무살이 된 민언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의 일상사 수도도 덤으로 말입니다. 2월 13일, 새로운 시작을 알린 부산민언련의 2014년이 밝았습니다. 어느새 스무살, 부산민언련 역사의 또 한 장이 넘어갑니다.

부산민언련 창립20년

특별 언론학교

4월 2일 ~ 16일 부산하나센터

P. 5면 참조

Contents

02 '20년'

축하메세지, 깜짝퀴즈

03 기고글

대표, 부대표 인사말

04 언론비평

선거보도 비평

05 활동소개

언론학교,

MBC낙하산 인사 반대 활동

06 만나러

잡니다

장길만, 박시현 회원

07 회원활동/

새 회원소개

08 그림세상/

고맙습니다

부산민언련 '20년' 축하합니다

부산민언련 창립 20년을 맞아 회원들이 전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희길 회원 (부산MBC 기자)

부산에서 민주언론의 깃발을 든지 20년. 성년의 나이가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부산의 위상에 걸맞게 지방분권, 언론분권에도 앞장서 주십시오!

류창섭 회원 (소식지팀)

민언련에게, 너무 열심히 활동하다가 회비만 내거나 행사만 오는 회원 되지 말고 꾸준히 보는 회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회원님들이 민언련의 힘입니다!

심재훈 회원 (전 모니터팀/ 회사원)

그동안 여러번 사무실도 옮기고 함께하시는 분들의 면모도 조금씩 바뀌어왔던 것 같습니다. 점점 위상이 하락하는 지역과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켜온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작은 참여가 아쉬운 이때 회원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창립20주년 축하드립니다.

최수영 회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스무 살 청년으로 뜨겁게 성장한 부산민언련을 기쁜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더욱 당당한 청년으로 언론운동의 시민실천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부산민언련 창립 20주년! 빠샤^^

정은주 (전 사무차장)

스무살 이제부터 좋은 나이. 흥해라 부산민언련!

구자문 회원 (회사원)

20주년 축하합니다. 20년 전 시작할 당시 초심을 온세미로 지켜주세요~

깜짝 퀴즈!

부산민언련 '20년'을 기억해줘~

회원님들과 부산민언련 20년을 돌아보기 위해 '깜짝 퀴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퀴즈를 빙자한 20년 행사 홍보입니다만,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해요~ 정답을 민언련으로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윤대원 회원 (노무법인 나라 대표)

부산 민언련 20살 피끓는 청춘입니다. 더욱 뜨거운 삶을 위해 나아가길...

최용국 회원 (노동자생협 이사장)

언론때문에 속 상하는 세상입니다. 언론의 처지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언련 20주년을 맞아 심기일전 더 씩씩하게 민언련 활동을 펼칩시다. 민언련 화이팅!

정유진 회원 (모니터팀)

이제 막 알게 민언련을 알게된 새내기 회원이지만, 좋은 단체인 것 같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민언련,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화이팅!

오혁진 회원 (소식지팀)

지금까지 민언련 이십주년을 이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1. 부산민언련은 1994년 4월 30일 창립했는데요, '초대' 대표는 누구 일까요? (힌트 두 분 입니다)

2. '초대' 시리즈~ 부산민언련 초대 간사는 누구일까요?
① 정순영 ②황미향 ③이진규 ④박정희

3. 우리단체 소식을 변함없이 나르는 이 소식지의 '표제'는 무엇인가요? (힌트, 1면을 보세요)

4. 우리 단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언론을 바로 읽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강좌로, 특히 창립 초반엔 회원 배출의 산실이었습니다. 올해도 4월 2일부터 3회로 진행하는 이 행사의 이름은?

5. 창립 20년을 맞아 회원님들을 모시고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축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념행사는 언제 열릴까요? (힌트, 창립일이 언제지요?^^)

대표,신임부대표 인사

회원들 힘으로 의미있는 한 해 만듭시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 운영태입니다. 다시금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단체의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단체의 늙은한 모습을 자축하고 동시에 자랑하는 2014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표를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언론은 우리들의 희망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게 우리 단체가 가진 고유한 사회적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모니터활동을 중심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보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희망을 키워 나가기 위해 미디어교육 활동과 더불어 대안미디어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의 모든 활동은 회원님들의 자율적 활동이고 동시에 모든 회원님께 열려 있습니다. 쳐다보기조차 싫은 방송과 신문에 많은 분들은 분노를 넘어 이제 좌절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원님들의 힘으로 분명 의미 있는 올 한 해를 만들어 내리라 믿습니다.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부대표를 맡은 정수진입니다.

제게는 부대표라는 이름이 회원 노릇 똑바로 하라는 다른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소중한 역할을 차마 마다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올해로 스무 살이 된 부산민언련,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니다. 쉽지 않은 2014년이 될 테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해볼만 하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민언련을 위해 연임을 결의해 주신 대표님과 다재다능한 운영위원님들 계시죠,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사무국에, 묵묵히 믿고 응원해 주는 회원들까지 계시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 뿐인가요, 지난 20년의 역사를 돌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키워 낸 부산민언련입니다.

아마 올해는 그 분들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어린 민언련을 이만큼이나 키워 낸 분들, 모두 뵙고 싶습니다. 올 한해 2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해 부산민언련의 한 걸음 한 걸음 회원들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쓴소리 단소리 맞겠 해 주십시오.

'스무 살' 키워내신 회원님들 모두 만나고 싶습니다



언론비평

지역언론 관심 '새누리당 경선'에만 쏠려

오혁진

회원

부산 지방선거가 약 80여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 선거는 지난 선거와 달리 여, 야 모두가 경선부터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허남식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시장 후보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그래서 서병수, 박민식 의원부터 권철현 전 주일대사까지 시장 후보를 도전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압도적 우위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통합신당 역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오거돈 무소속 후보와 연대문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치열한 경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2월 선거 모니터는 선거 보도의 핵심인 공정성과 함께 여론조사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

부산 정치는 새누리당 정치다?

2월 한 달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선거 보도량을 분석할 결과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기사가 많았다(표1 참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새누리당 단독 기사는 각각 54.4%, 57.7%로, 야당 보도 전체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았다. 뉴스 이슈가 새누리당에 크게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새누리당 편향 기사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 10일 기사 <요동치는 부산시장 선거 구도>(1면)에서는 제목과 달리 내용은 서병수 입각설과 김무성 역할론을 주목한 새누리당 보도였다. 11일 <부산시장 선거 판세 안갯 속 새누리당 '비상'>(1면)에서는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새누리당 공천후보'가 여전히 오거돈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도, 개별 후보군의 지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점을 확대 해석하며 새누리당의 위기를 부각했다.



신문	경당 보도	새누리당 단독	야당 단독 (민주당, 안철수신당, 오거돈 후보, 진보정당)	종합
국제신문		37(54.4%)	24(35.2%)	7(10.2%)
부산일보		40(57.1%)	25(35.7%)	5(7%)

<표1> 2월 선거보도 여야 선거 보도량 비교

국제신문의 경우 '오거돈 후보'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눈에 띄었다. 3월 4일 <삼수생 오거돈의 '양다리 정치'>(1면)에서 '무소속 완주와 통합신당 합류의 '줄타기'를 당분간 이어가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저울질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선거를 90여 일 남겨놓고도 '정체성 놀음'에 빠져있는데다 '부산 비전'도 제시하지 않아 '부산 시민을 무시한 행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오 후보 비판을 일방적으로 나열했다. 이 같이 국제신문은 오거돈 후보의 무소속 연대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선거 박원순, 김두관 사례에서 무소속 연대는 유효한 선거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제신문의 비판은 지나친 면이 있다.

여론조사 보도는 보다 신중하게

지역신문은 모니터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그 중 국제신문의 보도에서 방법론적 분석 오류가 있었다. 국제신문은 20일 <서병수, 與 자체 여론조사서 오거돈 추월>(6면)에서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제목에서 '서병수 의원의 오거돈 후보를 추월'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서 의원

은 오 전 장관과의 가상대결에서 45.3%를 얻어 오 전 장관(41.5%)을 '오차범위' 내인 3.8% 포인트 앞섰다'라고 언급했다.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즉 차이가 없는 결과로서 사실에서 벗어난 부정확한 보도이다. 대신 오차범위 내 결과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박빙, 접전, 경합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¹⁾

선거와 여론조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선거 여론 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거에 대한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오류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론조사 보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가려진 절반의 목소리를 요구한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언론 입장에서 새누리당 중심 보도를 현재 부산 정치의 반영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언론이 나서서 부추기거나 특정 정당의 '뒷받'이라며 단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44.6% 표를 얻었다. 변화를 요구하는 부산 시민이 분명하게 절반가량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 중심 보도는 단순히 '현실의 반영'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 현상을 배제하고, 기존의 정치 현실만을 강화시키는 '재귀적 현실 구성'에 가깝다.

1) 한국 선거 여론조사와 그 보도에 대한 이슈 고찰, 양승찬

활동 소개

부산의 언론 역사부터 여론조사 톺아보기까지

20년 맞은 부산민언련이 회원들께 드리는 '좋은 강연' 선물



민언련 활동단신



'지역성' 무시한 부산MBC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부산시민사회단체 반대 활동 전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 12일 부산MBC시장으로 문철호 전 MBC 보도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부산MBC 시장으로 서울MBC 출신이 임명된 것은 독재정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역 자율성을 무시한 인사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부산MBC는 전직원 총회를 열어 '낙하산 사장 저지 부산MBC 비상대책위' 전환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문철호 선임 사장은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사로 지역MBC 장악을 위해 밀실에서 진행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13일 부터는 문철호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11일 곧바로 논평을 발표하고, 김재철 사장 시절 불공정 보도를 주도한 문재철 사장은 지역 방송의 '공영성'과 '지역성'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며 '낙하산 인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민연대, 지방보권시민연대 등 지역 연대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우리 단체가 참여하는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시민연대도 17일 지역 사회와 연대해 비판 기자회견과 낙하산 반대 1인 시위 등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무 살 청년 '부산민언련'이 회원님들께 <언론학교>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부산민언련 언론학교가 4월 2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부산하나센터에서 열립니다. 언론 학자로서 <부산언론사 연구>를 집필한 저자이자 부산민언련 초대 대표를 지낸 채 백 교수의 <한눈에 보는 부산언론사>, 한귀영 소장의 <넘쳐나는 여론조사 그리고 정치>, 변상욱 대기자가 전하는 <한국사회와 언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언론학교에 참여하시면 부산의 언론 역사와 부산민언련 역사를 들을 수 있고, 어지러운 정도로 쏟아지는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진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수십년간 언론 현장을 지킨 대기자가 전하는 통렬한 언론 현주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시민들이 언론을 비판적으로 읽고, 언론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해마다 <언론학교>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민언련이 창립 20주년(1994. 4. 30)을 맞아 지난 20년 동안 지회 단체를 성원하고 함께 해 주신 회원들과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강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민언련을 성원하고 든든히 지켜주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꼭 오셔서 언론과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 모니터' 함께할 회원 모집합니다!

부산민언련 모니터모임이 대학생들의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3월 10일, 20일 모니터를 진행했는데, 모니터 주제는 지역언론의 '6·4 지방선거 보도'였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보도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의견과, 언론이 중계자 역할을 할 뿐, 비판자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새롭게 참여한 모니터 회원들은 아직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는 생소해 했지만, 유권자로서 언론보도에 대한 솔직한 인상을 전해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6·4지방선거보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모니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가 잘 이뤄지려면 회원님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할 회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행복 바이러스! 박시현 회원

2006년 고 김성문 대표님(경성대 신문방송학 교수)의 권유로 우리단체 회원이 되신 박시현 회원님. 지금은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고 김석문 대표님의 지도 아래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하는데, 언론 민주화 운동을 공부하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부산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회원 가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박시현 회원님은 좀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KBS부산총국, 부산MBC, KNN 그리

니까 부산지역 지상파 방송 3사 모든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NN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넘게 일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아침뉴스에서 스포츠 뉴스를 맡았던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뉴스를 마치고 대기 중인데 한 시청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날 롯데 자이언츠 유명 선수가 결장했는데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그 선수가 왜 결장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마침 박 회원님이 그 정보를 체크해 둔 상태라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그 분은 만족스런 말투로 “

그래 스포츠에 관련된 건 박은주한테 물어봐 야지!”하며 끊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은주의 와이드 스포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보고 시청자가 인정해 주셔서 무척 보람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왜 박시현이 아니고 박은주냐고요? 이름을 바꿨거든요. 친구 따라 철학관에 갔다가 이름 바꿔야 오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연속 세 곳!) 바꿨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 '베폴 시', '밝을 현'을 쓰는 이름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름 바꾼 뒤 사무국으로도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름을 잘못 듣고 '시현'이라고 기명해 사과 드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

새로운 학생을 만나고, 학생들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좋아 현재 하는 일이 행복하다 이야기 하는 박시현 회원님.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건 '시사토크쇼'를 꼭 해보고 싶다는 회원님은 열정적인 욕심쟁이! (후후후!!) 오늘의 행복도, 내일의 꿈도 부산민언련이 응원하겠습니다.

장길만 회원님과 부산민언련의 인연은 1992년, 우리 단체가 창립을 준비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신문사 출신으로 광고 회사에 다니던 장길만 회원은 민언련 창립을 준비하던 황미향, 김성우 회원의 권유로 모니터 활동을 하며 창립을 도왔습니다. 창립 후에는 1기 언론학교에 참여하며 회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2기 언론학교에 참여한 어여쁜 아가씨에게 용감하게 들이대(?) 부산민언련 1호 커플을 이루며, 평생 반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열성적이고 변함없는 회원 활동을 인정받아 부대표, 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부산민언련 20년을 함께하며, 매 순간이 의미있었지만 그래도 대표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부산민언련을 대표하여 각종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이라고요.

요즘 방송은 잘 안보는데 볼 게 없기 때문이라고요. 뉴스는 불공정하고 대부분 방송 시간을 드라마, 예능이 차지하고 있어 아예 관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삶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사라져버렸고, 종편의 득세로 오히



'창립 20년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를 아시나요? 장길만 회원

려 다양한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은 더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 장길만 회원은 부산민언련이 '시청자와 지역 언론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당부했습니다. 비판이든 칭찬이든 지역 언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때론 사측과도 직접 만나며, 민언련 스스로가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했으면 한다고요.

'창립2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홍보를 부탁드리니, 언론 학교, 세미나, 백서발간, 기념식 등 20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20년 행사를 계기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주언론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사들을 소개했습니다. 덧붙여, 우리 단체에는 회비를 내고 뒤에서 든든히 지켜봐주시는 회원, 참여하는 회원 등 다양하게 계신데 이번만은 '꼭'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여는 회원의 의무지만, '권리'이기도 하다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0년을 함께 걸어왔는데, 서로 축하하며 다시 나가는 길에도 함께 해주세요” 장길만 회원의 당부입니다. ^^

새 회원을 소개합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을 담은 <종이배를 접는 시간> 저자 박지선, 김은민, 허소희 회원님이 지역판매 수익금을 스카니아코리아 노동조합에 후원했습니다. 세 회원이 속한 협동조합 미디토리는 책의 주인공인 한진지회 분들과 의논하여 현재 회사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카니아코리아 노동조합에 전달기로 했는데, 양산센터 천막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

조항제 회원님(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조봉권 회원님(국제신문 기자)이 기자협회 국제신문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조봉권 기자하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기자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데, 이번에 지회장을 맡아 후배기자의 의욕과 마음이 선배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기자협회보 인용) 축하드립니다.

봄을 맞아 회원님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지선 회원님이 3월 9일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친구같은 신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식날 신부만 너무 환하게 웃는다는 타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명혜 회원님도 3월 23일 결혼합니다. 결혼을 전혀 생각지 않던 주명혜 회원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신랑을 만나, 운명적으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멀리 용인에서 사시느라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축하축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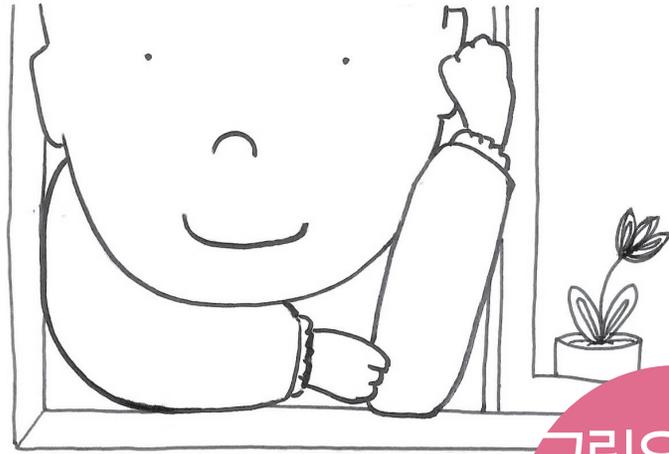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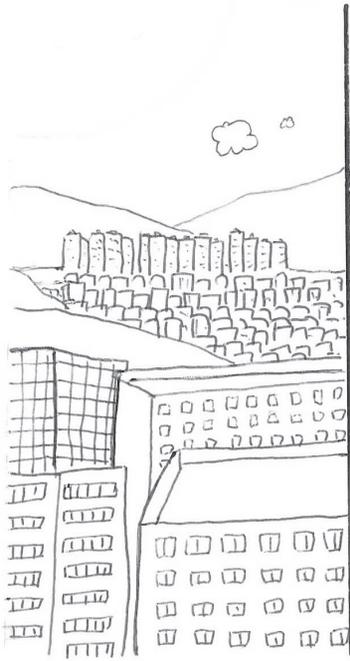
최지수 회원님이 한국해양대학교 편집국장 일을 모두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신문이 위축된 상태에서 후배 기자들과 함께 열심히 대학신문을 만들었던 최지수 회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행사에서 자주 뵈어요^^

회원 근황을 소개합니다

정유진님이 신입 회원이 되었습니다. 정유진 회원님은 현재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고요, 지인으로부터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제작 지원 활동을 소개받아 우리단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벌써 3편의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제작에 도움을 준 복성경 부대표의 권유로 우리단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라디오 제작지원 외에도 지방선거 모니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회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박희주님이 신입 회원이 되셨습니다. 박희주님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재직 중이고, '시민 라디오 제작단'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의 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지원 활동을 함께 고민하면서 복 부대표의 권유로 회원 가입을 결정한 박희주 회원님은 참하고 성실한 청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단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박희주 회원님! 회원 행사에서도 뵙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주만님이 신입 회원이 되셨습니다. 김주만님은 복성경 부대표의 권유로 가입하셨는데, 친구 복성경을 응원하고 지역시민단체의 스무살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봄냄새가 난다

그림으로
보는 세상

그림 류창섭

고맙습니다

2014년 1월, 2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

가경옥 감진숙 강동민 강동민 강병구 강승화 강아란 강필희 공진성 곽종교 구지영 권영란 권용협 권혁근 권호일 길재섭 김경준 김경화 김기식 김기종 김남지 김다혜 김대영 김대철 김동기 김명혜 김병국 김새별 김석환 김성연 김성우 김성현 김 숙 김아영 김어진이 김영민 김영준 김용범 김 옥 김유진 김은민 김재환 김정근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훈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주미 김주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숙 김진주 김차름 김철기 김태진 김태훈 김하원 김해몽 김현지 김형욱 김형천 김형철 김홍식 남원철 남정숙 남태수 노무법이나래 노정현 노현희 도상형
 독고지은 류수정 류위훈 류은하 류창섭 문소영 문정임 문종대 문지용 문진호 문창현 민은희 박경배 박동혁 박미순 박봉환 박상조 박소영 박순옥 박순정 박시현 박영달 박재진 박재혁 박정민 박정희 박주희 박지선 박태수 박태순 박홍원 배기연 배일진 배재한 배혜래 백미화 서용순 서은숙 서주영 성민영 성은진 손영호 손수성 손현익 송인섭 송태연 신금아 신병를 신은제 신재희 신정식 신태섭 신현숙 심재훈 안명환 안병규 안상훈 안은숙 안재영 안지민 안지숙 양민정 엄상준 엄창현 예종일 오보경 오정우 오정숙 오지은 오창호 오혁진 옥서연 왕수봉 원경덕 유시호 유원경 유행현 윤대원 윤명숙 윤성효 윤순정 윤영태 윤태연 윤택근 이경균 이경미 이경식 이경태 이경희 이근호 이두원 이명근 이명숙 이이미 이병주 이상기 이상진 이상희 이선헌 이설강 이성열 이승렬 이승신 이승환 이승훈 이아인 이영란 이영우 이오상 이원구 이원규 이일수 이지윤 이진규 이채언 이행봉 이현우 이혜숙 이호진 이희걸 임대현 임상민 임숙경 임순평 임언수 임윤희 임은정 임현주 장길만 장동범 장미영 장선화 장익진 장현수 장호출 장홍태 전대식 전미경 전미령 전유남 정경문 정경순 정경훈 정기평 정대원 정명수 정문모 정상도 정세화 정수진 정순영 정영근 정우윤 정은주 정은혜 정자연 정재성 정재훈 제봉득 조경숙 조기종 조범수 조보고파 조봉권 조소희 조재형 조항제 조희란 주명혜 주은희 주정림 차동업 차진구 채 백 최동섭 최상원 최수미 최수영 최용국 최용수 최은정 최지수 최진혁 최태경 최한주 최환웅 하미정 하성창 하은진 하인상 한현욱 허문화 허민경 허소희 허은영 허지안 홍유선 황대진 황상현 황영주 황지연

연회비 납부해주신 회원

김남원, 김상현, 김정우, 양승동, 이범수, 이진로

부산민언련은 정부 운영보조금 없이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영화제작 인쇄디자인 커뮤니티미디어지원

www.meditory.net

tel. 070.4349.0910

email. meditory@meditory.net



부산민언련 회원이 되어 주세요!

1994년부터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과 언론개혁의 한 길을 걸은 부산민언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사회,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은 그 사회의 거울인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그 시작은 참여와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100-019-186241 (예금주 부산민언련)